

뉴스홈 | 최신기사

## "시진핑, 푸틴에 '올림픽 중엔 침공 자제' 요청했을지도"(종합)

송고시간 | 2022-01-24 18:38



한중구 기자

기자 페이지

블룸버그, 중국 익명 외교관 인용해 시나리오 보도  
중러 즉각 반발..."가짜뉴스도 못 되는 미 정보기관 공작"



2019년 악수하는 중러 정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한중구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치 상황과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22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침공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22일(현지시간)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가짜 뉴스"라며 즉각 반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익명의 중국 외교관 발언을 토대로 이 같은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고 2022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평소 친분이 두터운 푸틴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블룸버그는 "푸틴 대통령은 파트너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려 할 것"이라며 "침공을 강행하면, 베이징 올림픽에는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했다.

이 보도와 관련,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블룸버그 보도를 향해 "가짜뉴스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고 러시아 스포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하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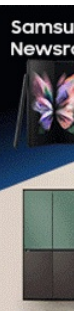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중국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민스크 평화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관련 갈등 상황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스크 평화협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 상태가 악화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들이 2015년 체결한 평화 협정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뒤 "중-러 관계에 대한 모독과 도발일 뿐만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와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 간략하고 안전하며 멋진 올림픽을 보여줄 자신이 있고,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베이징을 방문하게 할 자신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역시 블룸버그의 기사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가짜뉴스조차 못 된다. 미국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합의로 채택된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모든 국가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이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이 합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과거에도 올림픽을 전후해 전쟁을 일으킨 이력이 있다.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일에 그루지야와 전쟁을 시작했다. 2014년 소치올림픽 폐막 직후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정치 컨설턴트인 R폴리티크의 타타나 스타노바야는 블룸버그통신에 "이웃 나라 기분 좋아지라고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이득을 희생할 수는 없다"며 "푸틴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중국이 어떤 요청을 하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id@yna.co.kr

#### 관련기사

독일해군 1인자 "푸틴 존중하자" 발언 뒤 못매맞고 사퇴  
"러시아, 친러 정치지도자 심어 우크라이나 정권전복 시도"(종합)  
우크라이나 서방 대진차 개인화기 집결...러 침공 막을 수 있나  
미-러, 일단 대화모멘텀 유지...우크라이나 '일촉즉발' 위기는 계속(종합)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자연-인문의 아름다움 표현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4 18:38 송고

#푸틴 #사진핑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술, 호텔 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니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법률의 중심 테헤란  
TEHERAN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회계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45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사회 밝  
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